

성 김대건안드레아사제와 성 정하상바로로와  
동료 순교자들 대축일(9/20)

(후렴) 눈물로 씨뿌리던 사 람 들 환호하며 거두 리 - 라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 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 네  
 2. 그때 민족들이 말하 였 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 구 나  
 3. 주님, 저희의 귀양 살 이 네 집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 소 서  
 4. 뿌릴 씨들고 울며 가던사 람 들 - - -

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가 득찰 네  
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 기 에 우리는 기뻐하였 네  
 눈물로 씨뿌리던사 람 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  
 - -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